이승만기념관 강행…종평위 "서울시와 단절"

불교계 거센 반대에도 건립 추진해 갈등 커져

오세훈 시장, 시의회 참석해
"이승만기념관 부지 송현광장"
조계종 종평위 비판 성명 내
"이승만 정화유시, 불교 분열"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재차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기념관 건립 사업 강행 시 서울시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월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며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 방문해 논의할 때도 송현동을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오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 시장은 "영화 '건국전쟁' 등이 상영되는 것이 일종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며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바람직한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박민식 전 장관과 제 입장이 달랐다"며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선 "송현동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2월 28일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종평위 성명에서 "서울시장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2022년 7월 (송현녹지광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광장으로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었다"며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이곳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가 이뤄지겠지만, 그가 종교 방송 설립과 군종 장교 제도 도입 등에서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 민족종교는 차별했다"며 "이른바 정화 유시로 불교계 분열을 일으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시민과 약속대로 송현녹지광장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종평위는 "요구를 무시하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강행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쟁적 교육체계 바꿔야 저출산 극복"

진우 스님 저출산위 예방서
인성교육 중요성 거듭 강조


진우 스님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가소멸 위기 상황까지 치달은 저출산 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 "인성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가족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을 가르쳐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진우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민족정신과 사회문화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한 결과"라며 "물질에 집중한 나머지 정신적 여유와 인간 존엄성이 도외시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악재들이 점철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저출산 대책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인간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가 희석된 지금, 교육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며 현재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려 순위 싸움을 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다"며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 이타심 그리고 생명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스님은 "물질적 풍요는 경쟁의 대상이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스님 말씀대로 가족과 인간 존엄성을 바탕해 마련한 장기적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경쟁으로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전해 들었다. 종단에서 이처럼 만남의 장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불교는 언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다. 저출산도 국가의 존망을 건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응에 불교계의 협력을 구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사회 전체의 일이고 미래에 대한 일이니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유인촌, 태고종에 "의료대란 호소문 감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의료인들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한 태고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진 스님은 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유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상진 스님은 "전통사찰 지정 등 주요 종단 현안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면서 "국민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종교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태고종에서 의료인 현장 복귀 호소문을 발표한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유 장관은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유 장관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영산재에 관심이 많아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면서 "해외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행사로서 영산재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구본사 신흥사·백양사 주지후보 선출

지혜 · 무공 스님 단독후보 정리


지혜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로 각각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2월 24일, 백양사는 29일 경내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정리된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을 종법에 따라 각각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신흥사는 홍진·금곡 스님이 출마해 경쟁구도를 형성했지만 산중총회 전 사퇴하며 단독후보가 됐다.

지혜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방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고 동해 삼화사와 인천 능인사, 양양 명주사 주지를 맡았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수계했다.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고불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속리산 법주사 주지 선거 4파전 양상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후보에 정덕·황석·노현·원경 스님이 출마하며 4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27일 법주사 주지후보 등록 결과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이 입후보했다. 산중총회는 3월 8일 열린다.

기호1번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수계했다.

기호2번 황석 스님은 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수계했다.

기호3번 노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수계했다.

기호4번 원경 스님은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윤호섭 기자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